

개조식 문체 번역에 대한 고찰*

류 현 주
(부산외대)

1. 개조식 문체

번역 시장 수요 중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서적 출판이지만 개인적 번역 서비스 제공 사례와 통번역대학원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번역 센터 수주 상황을 보면, 기계·기술 관련 제품 사용 안내서, 각종 기관·기업의 홍보 책자, 세미나 및 국제회의 발표 파워포인트(PPT, Powerpoint) 자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와 비교할 때 제한된 지면 안에 많은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보여주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지면 제약 없이 내용을 모두 풀이하여 서술하는 일반적인 기존 텍스트에 비해 이들 텍스트들은 주요 내용을 핵심어 몇 개로 전달하는 요약형 문체를 흔히 사용한다.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여 나열하는 것을 ‘개조식’ 글쓰기라고 부른다. 앞에 나열한 텍스트들은 서술형 위주의 기존 문서와 차별화된 개조식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더욱이 인터넷이 정보 전달의 주 매체가 되면서 비교적 관계자들만이 참여하는 행사 발표 자료를 제외한 제품 및 기관 안내·홍보들은 일반 책자는 물론 웹사이트에도 탑재되는 사례가 많다. 문서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탑재될 때는 사이트 기본 윤곽에 해당되는 전체 구성과 다양한 메뉴 및 아이콘을 하이퍼 링크로 만들어 제한된 공간에 많은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것이 큰 관건이므로 여기서 개조식 문체는 필수적이다.

개조식에서 ‘개조’는 ‘규칙 10가지 조항’을 뜻하는 ‘회칙 10개조’에서와 같이 항목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에 방식을 나타내는 ‘식’을 부쳐 개조식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개조식 문체는 한 마디로 요약, 항목 나열 글쓰기라고 간추릴 수 있다. ‘개조’라는 말은 어떤 규정이나 내용이 ‘몇 개조’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처럼 항목 수를 지칭한다. 그러나 엄밀한 우리말 사용 어법에서 보면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다. 국립국어원의 박용찬 연구원은 ‘개조식’이란 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편 ‘개조식’은 그 의미를 알아내기 쉽지 않은 말이다. 개조식은 “‘개조(個條)’라는 한자어에 ‘방식’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식(式)’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낱낱의 조목이나 조항을 세는 단위로 쓰이는 의존 명사로서 단독으로 잘 쓰이지 않고 주로 수 관형사 뒤에서 쓰인다. 한편 일본어에서는 “問題(もんだい)の個條(かじょう)おしてきする [문제 조항을 지적하다.]”처럼 ‘개조(個條, かじょう)’가 ‘조항’의 뜻으로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일본어에서 ‘개조서(個條書き)’라 하면 ‘조목조목 쓴 글’ 또는 ‘조목이나 조항으로 나누어 쓴 글’을 가리킨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개조식(個條式)’은 ‘조목조목 쓰는 방식’ 또는 ‘조목이나 조항을 나누어 쓰는 방식’을 뜻하는 말로 우리말이 아닌 일본어식 구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그런데 군대에서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도 ‘개조식(個條式)’ 글이나 문서를 선호한다. 실제적으로는 지나치게 조목이나 조항을 나누어서 몇몇 단어의 나열로 글이나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우선 ‘개조식’이라는 말부터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 보는 건 어떨까? ‘개조식’은 ‘조목 벌임’, ‘조목 나열’ 정도로 바꾸어 쓸 수 있을 듯하다.¹⁾

1) 박용찬, “와꾸, 개조식(2),”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www.malteo.net/freeboard/f_view.php?board_id=1086858037&write_id=36&pape

이해하기 쉽게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조목·조항 글쓰기’로 사용해야 할 이 문체가 이미 ‘개조식’ 문체 혹은 문서라는 전문 용어로 정착되었고 의미 또한 본래 뜻하였던 조목 나열 글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용을 함축적으로 줄여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문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말 순화라는 이유는 정당하지만 용어를 선정할 때 실용적 언어 사용 빈도가 중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글쓰기 방식으로 널리 통용되는 ‘개조식’이란 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글쓰기와 현격하게 다른 개조식 문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켜 실제 수요가 많은 개조식 번역 문체 교육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명실상부한 실무 중심의 번역 전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개조식 글쓰기

2.1 개조식 글쓰기 소개

문서 작성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식 문서의 두 유형은 개조식과 서술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공식 문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몇 사람이 공유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지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요 사항을 전달하거나 혹은 발표를 위해 사용하는 문서를 일컫는 것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자주 사용하는 글쓰기가 서술식이므로 특별히 안내를 할 때 “개조식으로 하라”는 참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개조식이란 글쓰기의 한 방식으로서 서술식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전달하려는 내용을 모두 글로 풀어 쓰는 것이 서술식이라면 개조식은 이를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것들을 몇 개의 항목으로 나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업무 보고서, 기안, 공문, 대외 발표 및 보고 자료 등 공공 목적의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글쓰기 방법을 말한다. 정부 기관과 기업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를 통칭해서 부르기 때문에 개조식 문체보다 개조식 문서라는 명칭을 선호한다. 그러나 정확하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게 표현하자면 개조식 문서보다는 개조식 문체가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개조식 문체의 비중 여부에 따라 개조식 혹은 서술식 문서라고 불리지만 실제 번역에서 서술형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관공서나 각종 기관에서 언론을 비롯한 외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대외 보고문은 개조식 문체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관공서 문서는 개조식 문서라고 불리기도 하므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개조식 글쓰기 교육을 할 정도이다. 특별한 글쓰기 교육은 외국에서도 실행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계·기술 문서 작성법으로서 영어로 ‘기술 글쓰기(technical writing)’라고 알려진 것이다. 이는 주로 기업에서 제품 출시 때 사용자 설명서를 작성하는 글쓰기 방식으로, 예를 들어 전자 제품이나 기기에서 어려운 기계·기술 관련 표현이나 용어들을 일반 사용자들이 알기 쉽게 풀이하면서도 동시에 사용법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특별한 글쓰기 방법을 의미한다.

이 글쓰기는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강좌들과 전문 서적들이 출판될 정도로 특화된 글쓰기라는 점에서는 개조식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기술 글쓰기는 ‘technical writer(기계·기술 관련 전문 작가)’라는 직함이 있을 정도로 이러한 글쓰기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업이 있고 주제가 기술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전문 글쓰기 개념인 개조식 문체는 이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맥락의 문서에까지 통용되며 또한 전문 작가만이 아니라 해당 기관과 문서의 목적에 맞추어 문서 작성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더욱이 번역에서 개조식은 번역 문체의 하나의 방식을 나타내는 일반적 개념이므로 이것을 전문적 한 특정 분야에만 국한시킬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기술 글쓰기라는 용어가 기계·기기 사용 설명서뿐 아니라 산업 번역 텍스트를 지칭하는 일반적 맥락으로 확대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용어를 개조식 문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본래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또 다른 용어 남발의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기술 글쓰기의 맥락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문 글쓰기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 그대로 ‘개조식 문체’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2 개조식 글쓰기의 목적

글쓰기는 목적에 맞게 문체를 달리해야 하는데 논문의 형식이나 특별한 양식을 제시하여 글을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직장에 들어간 신입 사원들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글쓰기 방식에 기안 작성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기안 역시 제목 아래 1, 2, 3.. 등 항목 나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개조식 문체의 대표적 유형이다. 다만 기안은 기관 내 내부 문서인데 비해 번역 결과물은 관계 기관 안팎으로 공개되고 한국 직장 사회에서 말하는 기안 작성 방식이 통용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안에만 국한된 문체는 제외하였다.

개조식 문체는 정보 제공 공간의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내용만을 항목처럼 요약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다시 말해 어쩔 수 없이 단어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요약을 하는 것이다. 그 특별한 목적은 명확한 정보와 강한 설득력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짤막한 문구가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커피가 매우) 뜨거우니 조심하세요”란 주의 문구는 서술식으로 번역하면 “Be careful. Coffee is very hot!”이다. 그러나 이를 개조식 문체로 옮기면, “주의하세요.”를 “Caution” 제목으로 만든 후 “:” 안에 나머지 내용을 담아 “Caution: This beverage is extremely hot!”(던킨도너츠)로 표현한다. 제품 포장지는 가장 중요한 상품 이름을 크게 만들고 그 이외의 다른 정보들은 글씨체를 작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내용을 풀이하지 않고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불과 한 줄인 이 문구마저도 한 번 더 줄여서 “Caution: Contents Hot.”(맥도날드)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고려하여 정보를 잘 전달해야 하고 이를 위해 높은 언어 조탁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개조식 문체 번역은 영상 번역과 같은 언어 경제성이 필요하다. 언어의 경제성이란 가장 적은 수의 단어로 가장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상 번역은 영상 화면 자막에 담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술식으로 대사를 옮기는 것일 뿐 요약을 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개조식 글쓰기와 번역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약을 우선으로 적은 수의 단어로 많은 양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같은 영상 자료라도

영화나 드라마의 자막 번역은 서술식이지만 뉴스 프로그램의 영상 자막은 개조식이다. 영화 자막은 등장인물이 말하는 대사를 그대로 옮기지만 뉴스는 제한된 공간에 정보의 핵심만을 요약하기 때문인데, 이는 보도 기사의 제목이나 머리기사들의 내용 요약에 잘 나타나 있다. “방화로 이삿짐센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라고 진행자가 뉴스를 전달하고 있지만 스트리밍(streaming) 방법으로 주요 뉴스들을 계속 한 줄로 이어 보여 주는 TV 화면 하단에는 “방화로 이삿짐센터 전소”라고 옮겨진다.

간단한 핵심적 어휘만으로 더욱 설득력 있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강한 이미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개조식 문체는 영상 번역 전략보다는 광고 언어 기법과 유사한 점이 더욱 많다. 박영준과 김정우는 광고 분석 수사법을 소리, 문장 구조, 의미, 기타 수사법으로 나누면서(99) 생략법이 더욱 강력한 홍보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세계가 KT의 투명 경영을 인정하였다.”고 말하면 평범한 사실 전달 문장이 되지만 “KT의 투명 경영! 세계가 인정!”이라고 표현하면 기업을 자랑하는 홍보 광고가 된다(106).

2.3 개조식 글쓰기의 전략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된 내용을 간결하게 함축하는 개조식 글쓰기는 핵심을 요약하는 별도의 글쓰기 훈련이 필요하다. 개조식 문체 상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의 개조식 글쓰기 훈련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개조식 문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글쓰기로 지적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는 개조식 글쓰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미숙한 글쓰기 능력 때문에 그 만큼 자연스러운 요약이 되지 못하면서 기인한다.

그동안 기자들 사이에서 보도자료에 전문 용어와 한자어가 너무 많다는 불평이 있어왔던 게 사실이다. 공문서 투의 딱딱한 문장을 사용하다보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는 더 어려웠다. 아직도 상당수 부처는 문장을 ‘~임’ ‘~했음’ 등으로 맺는 ‘개조식’ 글쓰기를 고수하고 있다.2)

2) 김성완, “정부 부처 ‘기사 쓰기 연습 중’”, <미디어 오늘>, www.mediatoday.co.kr (2006년 6월 30일 인터넷 신문 기사)

이 기사에서는 개조식 글쓰기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것은 제대로 된 개조식 글쓰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인데, 그만큼 개조식 글쓰기 교육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 있다.

서술문 형식 문장의 글자 수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요약은 아니다. 글자 수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지만 문체는 무엇을 어떻게 줄이는가 하는 것이다. 글을 짧게 줄일 때 가장 쉽게 택하는 방식은 서술어를 “...함”, “...임”과 같이 동사 어미 “...하다”와 “...이다”의 “...口” 형태로 줄이는 것이다. 이는 개조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줄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에서 기인한다. 언어 전문가인 통번역사의 필수 자격 요건은 언어 숙달이다. 일반적인 학생들의 언어 숙달 정도를 가늠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언어 실태 조사를 통해 요약 습성을 파악한 적이 있다. 통번역대학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회의의 참관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과제를 내 주면서 서술식으로 풀어 쓰지 말고 요약을 하되 항목을 나열하라고 지침을 주었다.³⁾ 이 때 ‘개조식’이란 낯선 전문 용어 또는 개념을 미리 알려 줄 경우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연구를 한 후 의도적으로 개조식 문체에 맞추어 글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과제 작성 방법을 안내해 주었다. 다시 말해 ‘개조식 문체’라는 독특한 전문적 글쓰기 용어 대신 ‘항목을 나열하여 요약’하라고 설명만 해 주었다. 그렇게 해야 학생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글쓰기 습성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서술식 문체로 쓰다가 앞의 개조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서술어만을 줄이는 방식으로 요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① 몇몇 사람들은 노트북에 연사가 말하는 내용을 기록함.
- ② 한일과 선배님이 일본어를 한글로 통역하심.
- ③ 통역사는 정확하게 한국어를 구사해서 청중의 이해를 도와야 함.

위의 예들을 바람직한 요약 형태로 고쳐 개조식 문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2007년 9월 13, 14일 ICON 국제 게임 개발자 회의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학생 총 32명이 참관하여 개괄식 문체로 참관록을 작성하였다.

1) 핵심어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 구성 성분 생략

- ①*일부 청중(이), 노트북에 발표 내용(을) 기록.
- ②*한일과 선배(가), 일한 통역(을) 담당.
- ③*원활한 청중 이해 위해 통역사는 정확한 한국어 구사 필요.

조사가 생략되면 문장 성분을 구분하기 위해 콤마(,)로 표시를 하는데, 생략된 조사는 괄호 안에 표기한 것처럼 주격, 목적격 조사뿐 아니라 인과 관계를 함축 하기도 한다.

- ④ 터키 반격으로 쿠르드 반군 32명이 사망함.
- ④*터키 반격(으로), 쿠르드 반군 32명 사망.

2) 어근 중심 · 한자 서술어 처리

앞의 세 예문 모두 동사의 어근만으로도 간략하면서도 문장의 본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문장 ②는 “한일과 선배가 일한 통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동사 ‘통역하다’의 어근 ‘통역’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술어를 처리할 때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⑤*)인데 일반적인 좋은 글쓰기 지침에서 전문 용어와 한자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으나⁴⁾ 실제 공식적 국제 행사에서 발표 자료에는 모두 전문 용어가 불가피하게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PPT의 제한된 지면 공간 안에 함축적인 개조식 문체로도 주효하므로 많이 사용된다. 학생들의 지적과 같이 (⑤) 게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회의인만큼 당연히 해당 분야 전문

4) 한국일보 2006년 3월 31자 인터넷 신문에는 “좋은 글쓰기 이것만은!”과 “성인들 너도나도 글쓰기 열풍,” “보고서...논문...칼럼...글 잘 써야 잘 나간다” 등 글쓰기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가 수록되었다. 여기서 글쓰기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글쓰기 관련 책자에서 좋은 글쓰기를 위해서는 1. 전문 용어 남발을 피하라. 2. 영어나 한자 대신 우리말을 써라. 3. 조사와 어미를 제대로 써라. 4. 우리말의 시체를 맞춰라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세 가지가 개조식 문서 작성법과는 정반대이다.

용어와 개념이 나오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발표자들이나 참가한 청중들은 이 분야와 모두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평이한 용어들일뿐이다. 또한 게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게임과 관련된 통역, 번역을 담당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용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자료를 만드는 발표자와 번역자 모두 제한된 지면 안에 정보를 담아야 하므로 개조식으로 요약하는데 적은 글자 수로 많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한자를 쓰는 경향이 있다.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말 순화를 위해서라기보다 실제로 해당 우리말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용 한자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말로 서술하거나 혹은 어색한 개조식 문체로 문장을 만드는 사례가 더욱 많다.

- ⑤ 게임 전문 용어가 너무 어려움.
- ⑤*게임 전문 용어 난해

3) 문장의 재구성

원 문장 서술어를 어근만으로 요약하지 못할 때 문장을 재구성하면 서술어가 더욱 자연스럽게 요약될 수 있다(③*). 문장 ⑤는 너무 어려운 게임 전문용어”로 축약하면 “난해”라는 한자 서술어를 몰라도 “...口”어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⑤*는 일반적인 개조식 문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용사+명사] 구문인 “난해한 게임 전문 용어”로 바꾸면 이하 항목 나열 글쓰기가 더욱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문장 재구성은 문장 구성 성분을 축약하고 생략하면서도 의미가 누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 문장을 재구성할 때 의미 중심이 이동된다면 재구성을 하지 않고 원래 문장 구성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일기 예보에서 기상 캐스터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서술식 표현은 “전국적으로 비”만 요약하여 쓰더라도 의미가 모두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라고 진행할 때 자료 화면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음”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口”어미 처리를 피하기 위해 “대체로 맑은 전국”이라고 재구성하면 “맑음”이라는 본래 전달되

어야 하는 핵심 정보보다는 “전국”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3. 개조식 번역 사례

앞에서 일반적인 개조식 글쓰기의 문제점을 살펴 본 것은 영한 번역에서 개조식 문체에 대한 이해 부족과 글쓰기 훈련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 번역물의 품질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어 숙달을 위해 지적하였다. 개조식 문체 번역은 서술식에 비해 함축적으로 요약된 표현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목적 언어가 자연스럽게 구사되지 못하면 번역 수요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체는 번역 품질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이지만 특히 개조식 문체는 번역물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문체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번역품질 평가에서는 자주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이므로 기본적인 글쓰기의 특성을 우선 살펴보았다. 그럼 일반적인 번역 품질 평가에서 자주 거론되던 문제들은 제외하고 개조식 문체 번역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번역 방법 제시를 위해 구체적인 몇 가지 번역 사례를 분석해 보면서 위에서 언급한 개조식 문체의 특성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3.1 영한 번역 문제

-ST1: Addressing five main pollution sources

-TT1: 다섯 가지 중요한 오염 원인들을 다룸

-TT1*: 5대 주요 오염원 해결

개조식 문체(이하 TT*로 표시)에서 서술어 처리는 위와 같이 동사의 어미를 축약하는 것보다 다른 대체 동사의 어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체 항목 처리에서는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반적으로 통번역의 관건인 언어 숙달 능력이 개조식 문체 번역에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섯 가지’를 ‘5대’로 줄이거나 ‘오염 원인들’을 ‘오염원’으로 간략히 줄이는 것은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어휘이지만 책읽기와 쓰기가 기본적인

로 부족한 학생들이라면 일상생활 대화가 아닌 이러한 시사 문제나 공적 행사의 발표 자료 문구나 어휘는 같은 우리말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낯설게 느낄 것이다. 또한 통번역 교육 현장에서 보면 서술식 문체에만 익숙하거나 혹은 시간 제약이 많은 통역 전문 언어 숙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실제 간단명료한 언어 전달과 그것을 위한 어순 바꾸기와 어휘 선택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ST2: To protect a marine ecosystem, we chose the catch phrase, "whale watching, not whaling."

-TT2-1: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고래 잡는 대신 고래 보는 것을 즐기자"라는 표어를 내걸었다(서술식).

-TT2-2: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고래 잡기 대신 고래 보기"라는 표어를 내걸(어색한 개조식)

-TT2*: "포경(捕鯨) 대신 관경(觀境)" 표어로 해양 생태계 보호(개조식)⁵⁾

TT2*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분명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단어가 아니고 한자 위주의 전문 용어로서 관계자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통번역이 전문 언어직이라고 했을 때 주제에 대한 숙지(熟知)가 언어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므로 관련 분야의 자료들을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여 이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문 용어와 개념을 익히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특히 많은 약칭, 약어를 사용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개조식 문체 번역에도 역시 적용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5) 이하 환경 관련 자료는 2007년 10월 11일-13일 한국 YSLME 지부에서 주최한 <UNDP/GEF 해양 환경 보호 및 해양 자원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한 지역 회의> 발표를 위해 환경 운동 연합(KFEM) 바다 위원회의 조강희가 제출한 "해양 환경에 대한 대중 인식 증진과 지역 사회의 활용" 보고서(서술식) 그리고 발표 PPT 자료(개조식)에서 일부 문장을 발췌하고 이것을 다시 통역사의 발화 내용과 비교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3.2 한영 번역 문제

위의 두 예에서 보았듯이 개조식 방식은 일단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체와 문체가 아니고 축약하고 권위를 살린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한자 사용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통번역의 과제인 의미 이해와 내용 전달이외에 또 다른 숙달이 필요한 분야이다. “우리는 상업적 포경을 반대한다. We protest against commercial whaling.”라는 서술식 표현이 개조식으로 간단한 표어를 만들 때는 “포경 반대 No Whaling!”이 된다. 이 부분은 문서에 나오는 한 항목이므로 해당 문서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표현을 이해하고 또 전달해야 하므로 현재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상업적 포경이라는 것은 이미 문서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대 운동의 표어로 굳이 ‘상업적’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우리는...반대한다”라는 항의 표시는 No와 !문장 부호로 충분히 그 의미가 전달된다.

이와 같이 한영 개조식으로 표현을 잘하려면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로 표현할 때 기본적 외국어 능력 중 하나인 문장 구성과 표어나 PPT와 같이 그 문서의 목적에 맞는 문체 작성법에 익숙해야 한다는 부가적 능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정부 보고 인쇄 문서에서는 제목 내용, 상위, 하위 세부 항목 등을 개조식 기호, ‘□, ○, -’를 이용하고 있지만 PPT나 홈페이지의 항목 나열에서는 자연스럽게 외국어의 그것들과 유사하게 번호, 알파벳, 숫자, ○(bullet mark)를 비롯한 다양한 기호를 함께 사용한다. 여기서 한영 개조식 문체 번역의 문제는 이러한 기호가 아니라 제목과 세부 항목들을 연결하는 문장 구성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사하는 영어에는 영어 글쓰기의 요체 중 하나인 환언법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최근 핵 불능화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북한을 지칭할 때 우리말에서는 모두 ‘북한’ 하나로 지칭하지만 영어에서는 ‘North Korea’만 사용하지 않는다. 정식 명칭으로 DPRK로 부를 수도 있겠으나 이보다는 북한을 지칭하는 표현에는 한국과 관련하여서는 ‘the North’, 수도로 나라를 대표하는 방법으로 ‘Pyongyang’, 그리고 아직도 공산주의 잔재가 남아 있는 폐쇄 국가라는 점에서 ‘the Stalinist 혹은 the Communist Country’ 등 여러 가지로 달리 지칭한다.

영어 개조식 글쓰기는 우리말 개조식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간

단명료하게 축약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핵심어를 제외한 부분은 생략한다. “Hospital funding is provided using the dual hospital finance system.”이란 서술식 문장은 개조식으로 짧막하게 밑줄 친 핵심어만으로 “Dual financing of hospitals”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 개조식 표현에 비해 영어 서술문으로 개조식을 만들 때는 문장 구조를 전체적으로 재구성하기보다 표현을 달리하는 환언법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동사를 선택하고 이 동사의 목적어로 나머지 내용들을 항목으로 나열하는 경향이 있다.

With the hospital framework plan state governments determine the number of hospital beds and required specializations...(마테스 14)

In a so called hospital plan the state government determines the number and allocation of hospital beds and the specialization of the hospitals...(마테스 PPT 4)⁶⁾

이는 자신이 쓴 글을 보고 글 쓴 사람이 그대로 읽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이라도 글 쓸 때와 그것에 대해 말할 때 다르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한에서는 비교적 A 언어인 한국어 숙달이 더욱 잘 되어 있어서 환언과 문장 구조 재구성이 다소 쉽지만 B 언어인 영어로 전달할 때는 어휘력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간단한 이유도 있으나 무엇보다 품사와 문장 구성 성분을 자유롭게 바꾸어 문장을 재구성하는 능력에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통번역대학원에서는 언어 숙달을 위해 우리말(영어) 텍스트를 읽으면서 다시 우리말(영어)로 옮기는 환언 연습을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 문장 재구성 능력과 풍부한 어휘 습득 및 활용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같은 A언어, B 언어끼리의 숙달 과정도 처음 해 보는 원어민에게조차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6) 2007년10월19일 『보완통합의학 국제심포지엄』 자료집에 수록된 연사 하라드 마테스(Harald Matthes)의 논문과 실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PPT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 ST3: 환경 운동 연합은 해양 투기 중단 운동과 바다 모래 채취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 TT3: KFEM is campaigning to stop ocean dumping and sea sand dredging.
- TT3*: (KFEM) campaigning: stopping ocean dumping, stopping sea sand dredging

한영 개조식 번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제목 선정과 그에 따른 하부 조항을 나열할 때 표현을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이미 이 문장에 앞서 KFEM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므로 주어진 생략해도 무방하지만 제목의 영어를 campaign to stop이나 on campaign으로 하고 ‘:’ 다음 나열 항목에 목적어 ocean dumping, sea sand dredging만 쓰거나 혹은 문맥상 이러한 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하는 것이므로 stop을 적지 않고 이 두 세부 사항만 적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어색한 개조식 영어 표현에는 중복 부분(campaign, stop)을 다시 모두 나열하거나 아니면 항목에서 지나치게..ing명사형으로 처리하거나 (TT3*) 대부분 영문 회사/기관 소개에서 창립 연도를 KFEM(개조식에서는 be 동사를 생략)founded in대신 foundation of KFEM.....로 옮기는 것과 같이 ..of 명사형으로 번역하는 사례가 많다.

4. 개조식 문체 번역 교육

단어와 구문을 줄이는 축약(단어:abbreviation, 구문:ellipsis)과 생략 자체는 어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글쓰기의 한 방식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ST 내용을 줄이는 축약(abridgement)이나 ST 내용이 누락되는 생략(ommission)은 분명 번역에서는 지양해야 할 문제점들이다. 이는 ST와 TT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 번역 품질에서 원문에 비해 번역문에 누락된 것이 많으면 생략이요,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면 축약이고, 전달은 했으나 원문의 내용이 제대로 목적어 독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오역이 되는 번역 충실도(loyalty)의 문제이다. 그러나 개조식 문체에서 축약과 생략은 오히려 긍정적인 전략이다. 그만큼 개조식 방식은

중요한 글쓰기 방법이므로 번역사와 예비 번역사를 양성하는 번역 교육자들은 이에 대한 특별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앞서 한국일보 기사 인용에서 지적한 것처럼 개조식 글쓰기는 일반적 글쓰기와 달리 실용적 특정 목적을 위한 것임으로 이 목적에 부합하는 글쓰기를 익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번역을 위주로 개조식 문체를 살펴보았지만 이 문체 역시 서술식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어색한 개조식 어법은 구두 발화를 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못하다. 더욱이 개조식 문체가 두드러지는 정부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 문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러한 서술어 문체는 고압적인 느낌마저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글을 읽는 사람에게 주는 이러한 주관적 인상 이전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언어 구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에 방해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간략하지만 더욱 명쾌하게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개조식 문체는 글쓰기 자체는 물론 같은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 개조식 문체 번역에도 유효하게 사용되므로 별도의 훈련을 통해 숙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조식 문체의 시장 수요에 대한 번역 교육 현장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반영하여 서론에서 예시한 개조식 문체가 많이 사용되는 목적어, 출발어 텍스트들을 교재로 선택하는 것이다.

말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상세한 내용을 나열하는데 있어 개조식 글쓰기에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문서의 모든 문체가 전체적으로 개조식이 되는 경우보다는 개조식과 서술식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04년 행정 자치부의 행정개혁 본부에서 발간한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에서는 상세한 의사 전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 자료와 같은 행정 문서에서는 지나친 개조식 중심의 보고서 작성을 지양하고 이해하기 쉬운 서술식을 병용하면서 개조식과 서술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11). 그러나 또 한편에서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개조식 문서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개조식 문서 작성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번역에도 적용되어 외국어 텍스트를 한국어 개조식 문체로 바꾸었을 때도 요약과 항목 나열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한다. 만일 모르면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개조식 문체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본 논문의 취지도 번역에서 서술식을 버리고 개조식을 대체하자는 것이 아닐뿐더러 이렇게 될 수도, 또 되어서도 안 된다. 본 논문은 현장 실무 개조식 문체 번역 사례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이를 현장 교육에 반영시키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문제는 개조식이 아니라 서투른 개조식 문체이다. 그래서 개조식 문체 글쓰기와 번역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개조식이라는 미명하에 이해보다는 간결한 요약물 앞세워 어색하게 표현된 부자연스러운 항목 표현만을 나열하는 것은 우리말과 외국어 모두의 이해에 걸림돌이 된다.

지나친 개조식 문체는 우리말인데도 불구하고 서술문을 요약하여 핵심 사항만 항목별로 나열하는 특별한 글쓰기 방법이기에 때문에 일반인들의 글쓰기 훈련이나 신입 사원 혹은 정부 부처의 사무관급 공무원들이 별도의 실무 교육을 통해 터득하게 된다. 특별한 이 글쓰기 방식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듯 번역에서도 더더욱 이 교육이 필요하다. 개조식 문체 번역은 문장 구성에 따른 항목 나열 방법을 숙지해야 함과 동시에 개조식 문체의 가장 근본적 목적이 지면 제약에 따른 핵심 내용 전달이므로 언어의 경제성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숙달이 필요한 이 두 가지 과제를 안겨 준다. 이는 번역사 자신에게는 물론 시장 중심의 실무 교육이 되어야 하는 번역 교육 현장에도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해 주고 아울러 통역 언어 숙달을 위한 매우 유용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개조식 문서 번역의 높은 수요와 그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번역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언어적으로는 단어나 어구 표현, 어법,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문화소를 살린 자연스러운 언어 구사에 치중되어 왔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발표와 지면을 통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학문적인 번역학 대상 텍스트가 문학과 시사에 편중되어 있고 실제 산업 번역이라 할 수 있는 시장의 실수요 부분에 대한 대상 텍스트 선정은 영상물을 제외하고는 매우 부족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번역사로서가 아니라 연구자로서의 편중된 시각으로 번역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짚자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번역 교육에 그 동안 간과되었던 개조식 문체 번역에 대한 소개와 학습 자료 개발에 따른 실습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번

역 품질을 제고할 수 있고 나아가 연구 대상 텍스트를 다양화함으로써 현장 실무에 기반을 둔 번역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영준 · 김정우. 2004. 「광고 언어와 수사법: 메시지 강조 기법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9. 고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85-142.
- 박용찬 “와꾸, 개조식(2).”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http://www.malteo.net/freeboard/f_view.php?board_id=1086858037&write_id=36&page\(국립국어원홈페이지\)](http://www.malteo.net/freeboard/f_view.php?board_id=1086858037&write_id=36&page(국립국어원홈페이지))
- 행정자치부 안동시 기획감사 담당관실. “보고 업무 개선”. 2004.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실천 전략>.
- 김성완. “정부 부처 ‘기사 쓰기 연습 중’”. <미디어 오늘>. 2006년 6월 30일 인터넷 신문 www.mediatoday.co.kr
- “좋은 글쓰기 이것만은!” <한국일보:인터넷판>. 2006년 3월 31일
<http://news.hankooki.com/1page/culture/200603/h2006033118480575640.htm>
- Matthes, Harald. 2007. "The Role of German Government in the Development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and Medicine Industrialization". 『보완통합의학 국제심포지엄』 자료집(2007년10월 19일). 전라남도. 14-18.

[Abstract]

Translation of Abridged and Itemized Texts

Ryu, Hyunju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explores an abridged and itemized text(AIT hereafter) in light of translation. AIT mainly comprises a special writing style called “*Gaejosik*” in Korean which is a coined term of *Gaejo*(items)*Sik*(style). This refers to a writing style of listing items or expressing more with less number of words, in other words, pursuing economy of language while retaining the same meaning. This abridged style can effectively help contain more information in those texts that have space limit such as powerpoint images, advertisements, web pages, manuals and catalogs.

In term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language proficiency and professional skills are a must but a style writing commensurate with a target text purpose is significantly important as well. AIT is different from other general writing in that abridgement and ellipsis/ommission play positively and sentence restructuring occurs more often. In the mean time, Korean language speakers are not used to paraphrasing and in turn have difficulty in translating/shortening descriptive detailed information into abridged text with clear meaning.

The rising demand on AIT and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of writing between the two working languages necessitate raising awareness of this AIT issue and integrate its characteristics into general pedagogy of translation & interpretation.

▶ Key Words: abbreviation, advertising language, an item-writing style, implications, ellipsis, loyalty

류현주

부산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

ju2k@pufs.ac.kr

관심분야: 통역 · 번역학, 비평이론, 서사학

논문투고일: 2007년 10월 27일

심사완료일: 2007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07년 12월 15일